월요광장

면앙정(俛仰亭)의 가마꾼 이야기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광주의 무등산, 무등산의 계곡 중에서 원효계곡이야말로 시와 술과 풍류가 있었고, 성리학의 철학에 의병정신이 함양된 의혼(義魂)의 골짜기다. 수많은 누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면앙정과 식영정,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그곳을 출입했던 학자·문인들의 시문학과 학문은 조선 사림 문화의 최고봉에 이르렀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문화사의 정통적 평가이다. 그렇게 훌륭한 경관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던 학자와 문인들이 그곳에 모여 계산풍류(溪山風流)의 고급 풍류 문화를 창조해 냈음은 신기할 정도로 우수했다.

나는 1980년대 중반, 호남 학술과 문화를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효계곡의 위대함에 넋을 잃고 그곳을 헤매며, 그곳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그 결과물이 나의 첫 저서 '다산기행'(茶山記行, 1988 한길사)에 '무등산의 풍류와 의혼'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글에서 그곳 누정에 모여들던 당대의 학자나 문인들의 면모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이룩한 사림문화가 어떻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의병 운동으로 승화했던가의 연유를 나름대로 밝혀보기도 했다. 그곳을 출입하던 학자·문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김천일·고경명·김덕령 등의 의병 운동은 호남에 정의를 위해 몸을 바치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숭고한 애국심을 발휘하던 전통이 수립되게 했던 위대한 공이 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 황호택·이광표 두 문사들이 펴낸 '대나무숲 담양을 거닐다'(2022, 컬처룩)라는 책을 받았다. '문향·예향·의향'이라는 부제를 달고 담양군의 역사와 전통, 시문학과 학술, 대나무숲과 대나무 예술에 대한 모든 것을 열거한, 그야말로 담양의 속살까지를 모두 보여주는 값진 책이다. 그 책은 원효계곡의 가사문학을 깊이 천착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정문화의 이야기는 자세하여 읽어 볼 가치가 큰 책이다. 그 책에서도 유독 면앙정의 사림문화의 높은 경지를 극찬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나도 큰 차이 없는 생각을 지니고 있던 터여서 그 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해 보련다.

'면앙정가'로 세상에 유명한 송순(宋純,1493~1583)은 담양에서 태어나 담양에서 생을 마감한 호남의 대표적인 문신(文臣)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50여 년 관료 생활을 했지만 1533년 권신들이 나라를 어지럽히자 바로 귀향하여 정자를 짓고 학문을 연구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시와 시조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 원효계곡의 끝자락에 위치한 면앙정은 송순의 학덕에 문학가의 재능까지 합해져 누정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었다. 송순이 면앙정 정자를 중심으로 교류했던 당대의 학자나 문인들을 보면, 그 정자의 가치와 고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금방 알게 된다. '면앙정'이라는 편액부터 고급이다. 학자이자 명필이던 청송 성수침의 글씨였으니 더 할 말이 없다.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 조선의 최고 학자의 시가 걸려 있고, 고봉 기대승의 '면앙정기', 백호 임제의 '면앙정부', 제봉 고경명과 석천 임억령의 '면앙정 30영', 동악 이안눌과 양곡 소세양, 소쇄원 양산보의 시를 각한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의 대표적 학자와 문인들이 총망라된 으뜸 정자임을 넉넉히 알게 된다.

송순은 복이 많은 분이어서 91세라는 장수를 누렸고, 벼슬도 판서에 오른 고관이어서 만인의 추앙을 받았던 분이다.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87세에 회방(回榜)을 맞아 문인과 제자들이 모두 모이고 임금도 하사품을 내렸고 전라도 관찰사를 비롯하여 목사·군수·현령·현감 등 인근의 벼슬아치들이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마치고 송순이 정자에서 내려오자, 당대의 명인들인 박순, 정철, 이후백, 임제 네 분이 손으로 가마를 만들어 송순을 메고 내려왔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이른바 '하여면앙정(荷輿俛仰亭)'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탄생했다. 박순, 정철은 정승에 오른 분들이요, 이후백은 이조판서, 임제는 천하의 시인이었다. 그들이 가마꾼이 되어 어른을 모셨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던가.

송순이 타계한 지 215년째이던 정조 22년(1798년) 전라도에 도과(道科)를 실시하자, 정조가 내린 글제가 바로 '하여면앙정'이었다. 한말 대문호 영재 이건창은 면앙정을 방문하여 천하에 유명한 시 한수를 읊었다.

"송공의 명덕을 생각케 하니 / 향국(鄕國)의 풍류가 한시대에 풍성했네 / 정자는 의연하게 강위에 있는데 / 가마꾼 그 인물들 세상에 우뚝했소 / … 쳐다보고 굽어보다가 부질없이 서글퍼짐은 / 오늘은 누가 내 가마 메주고 나는 또 누굴 메줄꼬."

송순의 위대함을 그렇게 멋지게 노래 불렀다.

수필의 향기

배경에 대하여

김 향 남
수필가

결혼 후 집안일만 해오던 그녀가 재취업을 했다. 직장을 관두고도 실속 없이 배포만 큰 남자를 믿고 살기 어려웠다. 때마침 '나는 뭔가, 나도 내 몫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내심 차오르는 욕망 또한 거역할 수 없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남편을 향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통 크게 맞선 끝에 마침내 일자리를 찾았다.

가끔 그녀의 일터에 간다. 위로받고 싶을 때, 긴장을 풀고 아무 얘기라도 주절거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싱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그녀가 떠오른다. 한나절씩 교대근무를 하는 그녀의 일터에서, 나는 그 시간만큼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 따끈한 온찜질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잔뜩 뭉친 어깨에 뜸질을 한다. 다정하게 보호받는 느낌, 기분까지 나긋나긋해진다. 친구도 만나고 기운도 얻고, 오늘은 꽃구경도 하기로 했으니 이런 호사도 없겠다.

그사이 교대할 직원이 오고 그녀가 나를 소개한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는데 만날 책 읽고 편지 쓰고 하더니 진짜 작가가 되었지 뭐예요."

나는 공연히 겸연쩍고 쑥스럽다. 그녀의 말이 더 이어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 글 쓴다는 명목은 얻었지만 여전히 헤매는 중이고, 늦깎이 공부를 한 것도 맞지만 갈수록 모르는 것투성이고, 아이들이라고 매양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계획한 일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 버린 일도 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낙담이 컸던가.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못 한 채 엉거주춤 서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는 직원을 향해 나도 그냥 웃을 뿐이다. 밖으로 나오며 살짝 그녀를 꼬집는다.

"아니, 뭘 그리 꼬치꼬치…."

눈치 빠른 그녀가 얼른 내 말을 받는다.

"야야,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내가 네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냐?"

"……?"

의외의 대답에 다음 말이 궁금하다.

"내가 네 자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랑이나 마찬가지야. 알고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지. 날마다 핫팩이나 들고 남의 팔다리나 주무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나도 이렇게 열심인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씀인 것이지. 호호호."

그녀가 내 어깨를 치며 웃는다. 웃음 끝에 몇 마디가 더 따라온다.

"그리고 내가 살아 봐서 아는데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더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야, 이렇게 만나서 수다도 떨고 꽃구경도 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가슴속으로 뭔가 뭉클한 것이 지나간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나를 위로하는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래, 사는 게 뭐 별건가.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다독여 주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는 깔깔 웃으며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홀짝거리며 공원을 산책한다. 구름 낀 날씨가 걸리긴 하지만 어찌 다 좋을 수만 있겠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흐린 날의 꽃들이 암만해도 아쉽다. 피기는 어려워도 지는 건 금방일 텐데, 내내 흐리기만 하면 어쩌나 괜한 걱정도 든다.

그러자 문득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도 마세요, 손사래를 치는 듯 눈앞이 환해진다. 구름이 걷히면서 마구 햇살이 쏟아진다. 꽃도 나무도 금세 찬란하게 빛난다. 꽃은 더 화사하고 연초록 여린 잎은 더욱 싱그러워 보인다.

"와아, 진짜 이쁘다!"

"해가 비치니까 꽃이 훨씬 돋보이네!"

흐린 하늘에 돌연 안 보이던 것이 하나 등장했을 뿐인데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짱짱한 뒷배를 모셔온 듯 꽃들도 야무지게 제 빛을 피워 낸다. 꽃을 꽃이게 하고 봄을 봄이게 하는 진짜 봄날이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홀로 빛나지는 않은 것 같다. 태양이 있어 그 빛을 비추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 그 향기를 일으켜야 한다. 벌과 나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도 몇쯤은 있어야 하리라.

당신도 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꺼이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그래서 삶의 온기를 나누어 가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는가.

기 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다

김 재 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기 때문이다. 굳이 '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조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이 강화됐음에도 어린이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우리나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 수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치다. 스쿨존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기준 8400여 건이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1만 500여 명에 이른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고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치사 사고를 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음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운전자 과속, 신호 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보행자 의무 위반 등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운전자 시야 확보 문제다.

실제 광주에서는 2020년 11월 17일 운암동 벽산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2세 여아가 숨지고 가족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 개정 후 발생된 사고로 전국적인 이목을 받기도 했다. 이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였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시민의식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다. 최근 한 시민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상가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니 어린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에 잠시 주차하고도 과태료를 수차례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곤란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스쿨버스의 멈춤 사인(STOP SIGN)은 곧 빨강 신호등 역할을 한다. 스쿨버스가 멈추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서야 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다. 독일은 보호구역 차량 속도를 10㎞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운전자 과실로 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스웨덴은 스쿨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홈 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앞이나 등하굣길을 제외한 마을이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가 '홈 존'으로 규정되면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을 마을 외부에 설치할 정도다. 이처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운전자 의식 개선과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민식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시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보호구역 내 암적색 포장, 노란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도 시·종점 노면 표시 시범사업 추진, 횡단보도 앞 속도 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봄이다. 사계절 중 봄은 인생에서 어린이 시절일지 모르겠다. 봄 새싹 같은 어린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소풍을 가듯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은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어린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왕이 되었으면 한다.

社 說

해상풍력 제동 인수위 '탄소중립'은 어쩌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전남도가 중점 추진해 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신안군 자은도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시찰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장능인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재검토 배경으로는 풍력발전의 경제성 문제를 들었다. 장 대변인은 "해상풍력으로 만드는 전기는 평균 단가가 비싸므로 전국 평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당분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렵게 됐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전남도의 역점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등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핵심 부품 및 협력 기업 450개를 유치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목포·순천·광양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인수위의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경제성 문제는 기반 시설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원전 발전 단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결코 저렴하지 않다. 인수위는 '원전 프레임'에 갇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핑계 마을 연례행사 지원 중단해서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마을에서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마저 지원을 중단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행사의 경우 4년 전 지방 선거 때는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중단되는 등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 '기역이 니은이 축제'를 열고 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당시 주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매년 축제를 열어 왔다.

한데 올해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애를 먹었다. 광주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서다. 선관위가 주남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가 배정된 '광주시 인권 마을 사업'에 대해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세월호 추모 마을 행사도 선관위의 판단으로 행사가 무산될 뻔하다 간신히 열렸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이 지난 15일 북구청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북구청이 광장 사용만 승인하고 의자·테이블과 전기 공급 요청은 불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 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베푸는 게 주로 문제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두 행사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사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선거까지는 아직도 30여 일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 공공성이 큰 마을의 연례 행사까지 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관리 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됐다. 1916년 제정된 고적급 유물 보존 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과 1933년 시행된 조선보물 고적 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법적 토대였다. 일본은 이 법을 내세워 한반도를 파헤쳤다. 황당하게도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말이 발굴이지 도굴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나주 반남고분군은 1917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발굴했다. 그는 신촌리 9호분에서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놀라운 유물이 쏟아졌음에도 문서 한 페이지 분량도 되지 않는 보고서로 일축해 버렸다.

해방 후 보존 규칙과 보존령은 당연히 철폐됐어야 했으나 1962년 우리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문화재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됐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도 일본이 1950년 제정한 '문화재 보호법'을 본뜨거나 영향받아 만들었다. 우리의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이 친일 성격이 가장 짙은 법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문화재'라는 명칭의 한계는 학계에서 숱하게 지적해 왔다. 문화유산을 재화로 보는 경제적 개념이 농후해서다. 대신 '유산'(遺産)으로 개칭해 역사적·정신적인 문화 가치를 새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문화재는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만 쓰는 용어다. 북한은 민족 유산(民族遺産), 중국은 문물(文物), 대만은 문화자산(文化資産)으로 쓴다.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여러 유산을 통칭해선 '국가 유산'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때늦었으나 반가운 일이다.

문화재청이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재 보호법의 독소 조항도 손봤으면 한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국가 지정 문화재 혹은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비지정 문화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명칭 개정을 계기로 지정 문화재는 물론 비지정 문화재까지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

/윤영기 특집·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